

##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무의식과 젠더 표상 연구

도수영\*

###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동일시와 젠더 정체성
- III. 무의식의 과정으로서 은유와 젠더 정체성 변모
- IV. 나가며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의 표상을 무의식적 층위에서 고찰하였다. 오정희 소설에서 젠더 정체성은 무의식을 반영하는 은유로 표상되고 있다. 작품 속 화자의 유년시절 상실체험은 애도의 과정을 끝내지 못하고 동일시 대상의 내면화로 이어진다. 때문에 화자는 여성으로서 젠더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자아 비난과 환멸의 시선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아버지 상실 단계에서 어머니와의 애착과 통합을 통해 동일시 대상을 대체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아버지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라는 초자아가 화자의 무의식에 자리 잡게 된다. 화자의 무의식에 자리 잡은 남성 초자아는 상실의 분노를 자신에게 향하게 한다. 그 결과 화자는 자기비하와 여성 젠더에 대한 환멸적 시선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그렇듯 불안하고 왜곡된 화자의 젠더 정체성은 작가의 후기작인 「옛우물」에서 변모한 모습을 보인다. 「옛우물」은 화자의 무의식이 반영된 은유를 통해 내면화된 동일시 대상을 대체하는 서사로 변모한다. 작품에서 화자는 자신의 기억을 소환하여 해석하고 명명하면서 타자가 자리 잡은 초자아와의 분리와 주체적 젠더 정체성 형성을 모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작가 오정희의 경험과 의식이 작품 속 화자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오정희가 창작을 통해 지속해온 여성적 자의식 탐구가 자신의 여성적 자의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주제어 : 무의식, 은유, 상실체험, 동일시, 젠더 정체성

## I. 들어가며

오정희는 해방 직후에 태어났다. 때문에 유년기에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살이의 고단함과 가난을 몸소 경험하였다. 그리고 뒤틀린 가부장제의 관습이 유효하던 시대였기에 여성의 주체를 세우기 어려웠음은 물론 그로 인한 상처를 이해받기 어려웠다. 그로 인한 트라우마는 작품의 면면에 드러나 있다. 이를테면 작가의 몸에 체득된 불안은 작품에서 아버지의 가부장권을 대신하는 ‘작은 폭군’인 오빠, 연이은 출산의 고통으로 인해 비애로 점철되는 어머니, 불안과 공포 속에 태아를 지워버리는 여

성, 부평초처럼 떠돌며 삶의 두서를 잡지 못하는 여성, 기만의 장소에서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는 여성 등 현실에 불협화 하는 존재로 형상화 된다.

프로이트는 문학창작과 작가의 몽상을 동일선상으로 보고 작가는 창작을 통해 자신을 관찰하면서 욕망을 작품에 투영하고 자신의 성향을 드러낸다고<sup>1)</sup>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학은 작가 자신의 정립이 될 수 있으며 오정희의 문학은 불협화음의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의 문학적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오정희 자신이 경험한 시대의 불안과 이해받지 못한 고독과 상처를 자신이 창조한 문학으로 해석하려는 의도가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정희는 1968년 단편 「완구점 여인」으로 등단했다. 그녀는 첫 창작집 『불의 강』을 시작으로 『유년의 뜰』, 『바람의 넋』, 『불꽃놀이』의 소설집을 통해 시대를 관통하는 여성성을 문제 삼고 존재의 불안과 공포라는 주제에 천착한 작가이다. 오정희 소설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첫째, 성장소설의 측면<sup>2)</sup>, 둘째,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논의<sup>3)</sup>되는 여성성의 측면, 셋째,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의 연구<sup>4)</sup>이다. 그 중에서도 페미니즘 측면에서는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는

1) Sigmund Freud, 『예술, 문학, 정신분석』, 정장진 역, 열린책들, 153~154쪽.

2) 이정은, 「오정희의 여성성장소설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김은혜, 「오정희 성장소설의 트라우마 양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이서현, 「오정희 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곽상순, 「오정희 여성성장소설의 유년인물 연구」, 『어문연구』4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8/김영애, 「오정희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 : 성장소설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2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4.

3) 김지혜, 「오정희 초기 소설 연구 : '媽'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최영미,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최수완, 「오정희 소설의 젠더정치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강윤희, 「오정희 소설 연구 : 여성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강지희,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송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4) 박준희,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주체의 욕망 연구 : 텍스트의 무의식과 담론 구조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최윤자, 「오정희 소설 연구 : 용의 재생 모티브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안숙원, 「오정희 단편소설 「동경」 연구: 정신분석학적 접근」, 『인문사회과학연구』2,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2/동미령, 「「완구점 여인」에

데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심층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는 성과가 있다. 하지만 논지의 많은 부분이 여성의 몸에 대해 생명을 잉태하는 모성성으로 신비화하고 그것을 여성의 차별적 우월성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논지는 여성의 존재론적 의미를 찾는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지만 여성이라는 주체와 역할을 편중되게 인식하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오정희의 소설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 「옛우물」을 중심으로 유년의 시절에 겪은 근원적 상실체험이 젠더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상실의 상황이 완료되지 못하고 무의식에 편재되었을 때 젠더 정체성이 왜곡되는 지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옛우물」에 이르러 젠더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정희가 “어차피 나는 이제껏 소설이라는 무대장치를 벌려 너무 많이 자신의 얘기를 해 왔다”<sup>5)</sup>고 고백하기도 했듯이 오정희 소설에는 작가자신의 삶이 투영되어 있다. 작가의 어머니의 다산, 부모의 월남, 전쟁 중에 서울에서의 고립, 피난처에서의 생활, 인천의 중국인 거리에서 유년을 보낸 기억 등이 작품 속에 변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소재적인 차원에서 활용되는 것을 너머 작가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작품에 투영해서 재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인물의 무의식과 젠더 정체성의 표상을 탐색하고 이를 작가의 자의식과 연동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나타난 나르시시즘 연구, 『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5) 오정희, 「나의 소설, 나의 삶」, 『작가세계』25, 1995, 143쪽.

## II. 동일시와 젠더 정체성

프로이트는 원체험으로 기억되는 상실의 체험이 자아와 성격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 관계에 주목했다. 이러한 상실에 대응하는 태도로 애도와 우울증이 있다. 애도는 상실을 겪은 후 대상의 상실을 인정하고 다른 대상의 교체가 가능하게 된 것인 반면 우울증은 자신이 욕망했던 대상의 상실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때 자아는 상실을 인정하는 대신 자아구조 속에 타자를 위치시킨다. 즉, 상실된 대상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자아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애도는 사랑하는 대상의 부재를 인정하고, “대상에게 집중되었던 리비도가 철회되어 새로운 대상에게 전위되면서 점차 상실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다. 반면 우울증은 상실의 경험 후 슬픔과 애도의 과정을 끝내는 것에 실패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우울증은 “자아를 포기된 대상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sup>6)</sup>함으로써 대상 상실이 자아 상실로 바뀌게 된다.

같은 맥락에 버틀러의 우울증적 젠더 정체성이 있다. 버틀러는 젠더를 “내적 고정성의 외양을 수행적으로 구성하는 행위”<sup>7)</sup>라고 하면서 젠더 정체성을 크게 패러디적 정체성, 수행적 정체성, 법 앞에 복종하는 정체성, 우울증적 정체성의 네 가지로 설명한다. 그 중에서 우울증적 정체성은 “상실의 대상이 있을 때 그 상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했던 대상을 자신의 내부로 합체”<sup>8)</sup>하여 내면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면화된 동일시는 일시적 경험이 아니라 자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전과 다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애고의 일부로 자리 잡은 타자는 “단순히 성격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젠더 정체성의 획득에도

6) Sigmund Freud, 윤희기 옮김, 『무의식에 관하여』, 열린책들, 1997, 256쪽.

7) Judith Butler,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주문학동네, 2008, 218쪽.

8) 위의 책, 23~29쪽.

영향을 미친다.”<sup>9)</sup> 요컨대 프로이트의 우울증과 버틀러의 우울증적 젠더 정체성은 상실에 대한 은유적 대응이 결여된 것이다. 다시 말해 상실을 인정하고 대상을 대체하는 무의식과정으로서 은유적 구조화가 이행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유년의 뜰」에는 이러한 상실체험과 젠더 정체성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저녁을 먹은 후 바람이 서늘해지면 아버지는 나를 어깨 위에 태우고 밖으로 나갔다. 아버지의 무등을 타면 어찌나 높던지 나 자신 풍선처럼 공중에 둉실 떠오르듯 눈앞이 어지러이 흔들 거렸다. 곧 동생이 태어날 거다. 아버지는 내 넓적다리를 꽉 쥐며 노래 부르듯 말했다. 엄마 배 속에 아기가 들었단다.

꽉 잡아. 아버지의 말에 따라 아버지의 머리를 잡으면 손에 찐득찐득한 머릿기름이 묻어났다. 아버지는 내게 연약한 넓적다리나 발목을 잡던 압력, 막연히 따스하고 부드러운 것, 보다 커다란 것, 땀으로 젖어 있던 등허리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억 역시 내 상상이 꾸며낸 더 먼 꿈속의 일은 아니었을까.

전쟁이 끝나면 아버지가 돌아온다. 두 해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지만 할머니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정다운 기억,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사실에 우리는 모두 얼마쯤의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매일 술 취해 돌아오는 어머니를 향해,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차갑게 협박하는 오빠까지도.<sup>10)</sup>

저녁을 먹은 후 초저녁 바람을 맞으며 아버지의 목말에서 바라보는

---

9) 위의 책, 198쪽.

10) 오정희, 「유년의 뜰」, 『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1981, 53~54쪽. 이하 「유년의 뜰」에 대한 인용은 모두 같은 책을 출전으로 하며 페이지만 적는다.

세상은 아름답고 자신은 한없이 높게 느껴졌다. 그러나 나의 연약한 몸을 잡던 악력으로 기억되는 따스하고 커다란 존재로의 아버지는 전쟁에 차출되어 두 해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 어린 노랑눈이는 아버지를 ‘얼굴도 기억할 수 없고’ 단지 냄새로 얼룩으로 기억할 뿐이다. 전쟁은 아버지의 부재뿐 아니라 소녀의 일상과 정신도 바꿔 놓았다. 아버지의 부재로 아버지의 역할을 떠맡은 어머니 또한 생활을 위해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게 된다. 노랑눈이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재가 동시에 찾아온 셈이다. 게다가 어머니는 아버지 역할의 대행으로 정당화되는 수상한 밤 외출이 잦아지고 외박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노랑눈이는 동일시할 아버지 대상의 상실과 함께 애착관계를 형성할 어머니 대상도 찾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노랑눈이는 ‘거부’의 내면화 과정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해 동일시할 대상의 부재와 여성으로서 젠더를 통합할 어머니의 역할 부재로 인해 대상 바꿈 즉 무의식으로서 은유에 실패한 노랑눈이에게 아버지는 초자아로 자리 잡게 된다. 이때 초자아는 에고를 비판하는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내면화로 노랑눈이는 불안과 자기 환멸의 기질이 생성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이러한 부모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소년은 욕망의 대상이자 사랑의 대상인 어머니를 상실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거쳐 대상 바꿈을 시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년은 아버지와 애착을 강화하고 자신을 남성에 통합시키면서 남성 젠더를 획득하게 된다. 한편 소녀의 경우 욕망의 대상인 아버지의 상실에서 동일시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이성애적 애착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애착을 강화하고 자신의 여성성을 통합하게 된다.<sup>11)</sup>

---

11) Judith Butthler, 앞의 책, 200쪽.

그러나 문제는 어떤 배타적 상황으로 인해 젠더 형성의 과정으로 가지 못하는 때로 욕망의 목적과 대상을 모두 거부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이를테면 소년은 이 목적과 대상을 거부하고 이성애적 집중까지도 거부하게 되면서 남성성으로의 통합 대신 여성적 초자아를 세우게 된다. 반면 소녀가 이 과정에 실패한 경우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통합의 과정이 아닌 아버지를 내면화해서 남성적 초자아를 세우게 된다. 남성적 초자아는 여성성을 해체하고 남성적 리비도 기질의 통합을 유도하게 된다. 「슬픔과 우울증」에서 프로이트는 우울증환자의 자기 처벌적 또는 비판적 태도가 내면화된 동일시 상태의 결과라고 한다. 다시 말해 원체험의 과정에서 상실된 대상이 미해결 상태로 예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두 심리 간의 투쟁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예고가 원래 대상에게 느꼈던 분노는 방향을 틀어 내면화된 대상이 예고를 비난하게 된다.<sup>12)</sup> 요컨대 애도과정은 대상의 대체라는 점에서 무의식의 과정으로서 은유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베틀러의 우울증적 정체성은 상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면화하여 무의식적 은유과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정희 소설의 소녀 자아는 이러한 문제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어두운 밤은 무서웠다. 자꾸 주발로 손이 갔다. 밥알의 들큰한 맛이 입에 남아 있는 동안은 무서움을 잊을 수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슬금 슬금 손이 가는 사이 주발의 밥이 꺽 줄어 있었다. 〈중략〉 나는 일어나 더듬더듬 부엌으로 나갔다. 벌돈움질을 하고 서서 선반의 그릇과 찬장을 뒤졌다. 할머니가 삶아둔, 밤마다 우는 동생을 달래기 위한 고구마는 찬장의 냄비 속에 숨겨져 있었다. 고구마가 없어진 것을 알면 할머니는 한밤중에라도 자는 언니와 작은오빠를 혼들어 깨울 것이다.

---

12) 위의 책, 201~203쪽.

네가 처먹었지, 네가 처먹었지.(32~33쪽)

노랑눈이의 가실지 모르는 식탐은 먹을 것이 귀한 전쟁 중에 난감한 일이었다. 노랑눈이는 언니 오빠들보다 더 많은 밥을 먹는 것도 모자라 어머니의 뜶으로 남겨 놓은 주발의 밥까지 야금야금 먹는다. 거기서도 허기를 채우지 못한 노랑눈이는 할머니가 알면 경을 칠 것을 알면서 찬장 안에 있는 고구마를 훔쳐 먹다 들어오는 할머니의 기척에 “목이 메고 가슴이 빼개지는 듯”(33쪽)한 아픔을 느끼지만 물도 마시지 못한다. 노랑눈이는 급기야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대고 훔친 돈으로 사먹은 눈깔사탕을 입 안에 굴리며 그 사실이 들킬까봐 종일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을 돌아다닌다. 누구에게나 ‘뚱보야’라고 불리는 노랑눈이의 식탐은 불안을 잊기 위한 자기 보호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한 번만,이라는 단서로 염치없는 손을 타이르고”(33쪽)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대면서 “결국 돈을 꺼내게 되고야 말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갑에서 그것을 빼낼 때까지, 다디단 사탕을 다 녹일 때 까지도 조마조마한 마음”(38쪽)으로 피로워한다. 부재한 아버지, 마을 사람들로부터 ‘늙은 갈보’라고 손가락질 받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 대한 증오로 여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오빠, 그런 오빠를 말리지 않고 닦을 훔쳐와 먹이는 할머니 등 전쟁의 화마 속에, 생존과 본능의 비릿함 속에 누구도 노랑눈이에게 정서적 안정과 도덕률을 제시해줄 수 없다. 이렇듯 상실된 아버지는 노랑눈이의 에고 속에 초자아로 자리로 자리 잡게 되고 원래 아버지에게 느꼈던 부재에 따른 분노는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불룩 튀어나온 배와 작고 주름진 가랑이를 물끄러미 보며 나는 흐득흐득 흐느

졌다.(56쪽)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비난의 초자아로서 아버지는 소녀의 여성성을 해체시키고 남성성의 기질을 유도하게 된다. 노랑눈이는 방 안에 있는 등신대의 거울 앞에 옷을 벗고 서서 볼품없이 뚱뚱한 몸과 보잘 것 없이 보이는 자신의 성기를 비춰보며 흐느껴 운다. 어린 소녀의 자기 반영의 행위와 그 위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에 누추함을 느끼고 우는 행위는 우울증적 젠더 정체성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랑눈이는 어머니와의 애착과 통합으로 얹어지는 여성성 대신에 여성성을 해체하는 초자아로 인해 여성으로서 자신을 부정하게 된다. 때문에 자신을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숙한 여성으로 성장하게 될 자신의 몸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이렇듯 해체된 자기비하의 여성성은 「중국인 거리」에서 여성 젠더에 대한 환멸로 이어진다.

지난밤 떠나온 시골과는 모든 것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잡시,  
우리가 정말 이사를 온 것일까, 낯선 곳에 온 것일까, 이상한 혼란에  
빠졌다. 그것은 공기 중에 이내처럼 질게 서려있는, 무척 친숙하고, 내  
용은 잊힌 채 분위기만 남아 있는 꿈과도 같은 냄새 때문이었다. 무슨  
냄새였던가. <중략> 목덜미에 시퍼렇게 면도 자국을 드러낸 뒷박 머  
리에 솜이 빠져나온 노랑색 인조견 저고리를 입은, 아홉 살배기 벼침  
투성이 계집애인 나는 동생을 업고 이상하게 안절부절못하는 십사로  
우리가 살게 될 동네를 둘러보았다.<sup>13)</sup>

시의 정상에서 조망하는 중국인 거리는, 검게 그을린 목조 적산 가  
옥 배란다에 널린 얼룩덜룩한 담요와 레이스의 속옷들은 이 시의 풍물

13) 오정희, 「중국인 거리」, 『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1981, 86~87쪽. 이하 「중국인 거리」에 대한 인용은 모두 같은 책을 출전으로 하며 페이지만 적는다.

이었고 그림자였고 불가사의한 미소였으며 천칭의 한쪽 손에 얹혀 한 없이 기우는 수은이었다. 또한 기우뚱 침몰하기 시작한 배의, 이미 물에 잠긴 고물(船尾)이었다.(105쪽)

『중국인 거리』의 ‘나’는 『유년의 뜰』의 노랑눈이가 조금 더 자란 소녀가 된다. 『중국인 거리』는 『유년의 뜰』의 다음 이야기처럼 내용이 이어진다. 『유년의 뜰』에서 노랑눈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로 등장하고 전쟁에 차출된 아버지와 소식이 끊긴 채 서울에서 충청도 어느 시골로 피난하러 와 있는 상황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돌아온 아버지를 만나기 직전에 소설은 끝을 맺는다. 『중국인 거리』는 돌아온 아버지가 인천의 석유사업소 소장으로 취직하게 되어 가족이 인천의 중국인 거리로 이사 오는 이야기로 시작하게 된다. ‘나’는 중국인 거리가 “지난밤 떠나온 시골과는 모든 것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사를 온 것일까.”(86쪽)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뭐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있는 피난지에서와 같은 공기 중의 냄새 때문이었다. 그 냄새의 진원지는 전쟁이 끝났지만 계속되는 비열함을 감수하는 생존의 절박함일 것이다. 전쟁은 끝났어도 삶은 여전했고 소설 속 어린 화자는 자기 비하의 시선에서 환멸적 시선으로 이어진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수채에 쭈그리고 앉아 으윽으윽 구역질을 하고 있었다. 임신의 징후였다. 이제 제발 동생을 그만 낳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나는 처음으로 여자의 동물적인 삶에 대해 동정했다. 어머니의 구역질은 비통하고 처절했다. 또 아이를 낳게 된다면 어머니는 죽게 될 것이다. 밤이 깊어도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마약 생기기 시작한 젖망울을 할머니가 치마 말기를 뜯어 만들어준 띠로 꽁꽁 동인 언니는 홀이불의 스침에도 젖이 아파 가슴을 싸쥐며 돌아누

위 앓았다.

〈중략〉

내가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머니는 지독한 난산이었지만 여덟 번째 아이를 밀어내었다. 어두운 벽장 속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의 막막함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그리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거미줄처럼 온몸을 끈끈하게 죄고 있는 후덥덥한 열기를 그 열기의 정체를 찾아내었다. 초조(初潮)였다.(106~116쪽)

중국인 거리에서 지내게 되는 몇 년 동안 어머니는 일곱 번째 동생을 낳고 또 다시 여덟 번째 동생을 임신하게 된다. ‘나’는 수채에서 구역질을 하는 어머니를 보며 참담함을 느끼며 어머니의 동물적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의 출산과 이어질 어머니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생산과 소멸이라는 여성적 삶에 대해 비애를 느낀다. 어머니에게 느끼는 여성적 삶에 대한 비애뿐 아니라 이 소설에 등장한 여성들은 모두 생과 사의 경계 또는 주변부로 버려지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이를테면 양공주로 살다가 동거하던 흑인에 의해 2층에서 던져져 죽은 메기언니, 메기언니처럼 양공주가 되는 것이 꿈인 치옥이, 모두 여성 주체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요원한 존재들이다. 때문에 ‘나’는 여전히 여성성의 통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아 속에 위치한 초자아로 인해 젠더 정체성은 부정되고 있다.

나는 이러한 광경을 보며 주머니 속에 케이크를 꺼내 베어 물었다.  
그것을 다 먹고 났을 때 갑자기 욕지기가 치밀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꾸역꾸역 토해냈다. 단 케이크는 한없이 한없이 목을 타고 넘어왔다. 까닭 모를 서러움으로 눈물이 자꾸자꾸 흘러내렸다. 나는 다시 사이에 머리를 박고 구역질을 하며 뚱뚱 속을 들여다보았다.

이 어두운 뚱통 속으로 어디선가 한 줄기 햇빛이 스며들고 눈물이  
여려 어룽어룽 펴져 보이는 눈길에 부옇게 끓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무엇인가 빛 속에서 소리치며 일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유년의 뜰,  
73쪽)

노랑눈이는 수업시간 중에 교장실에 불려가서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아버지가 정문 앞에서 기다리니 모시고 가라는 교장 선생님의 말이 생경하게 들리고 나의 신경은 오직 탁자에 놓인 케이크에 가서 박혔다. 교장실에 홀로 남겨진 노랑눈이는 얼른 케이크를 입에 옥여넣고 빠르게 다른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다. 급히 삼키는 바람에 몰래 고구마를 훔쳐 먹을 때처럼 목이 메여 눈물이 빠져나왔다. 노랑눈이는 변소 창으로 운동장을 가로 질러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언니를 보며 아버지의 귀환을 새삼 느낀다. 노랑눈이는 주머니에 훔쳐온 케이크를 베어 물어 삼켰을 때 심한 욕지기를 느끼고 변소에 먹은 케이크를 모두 토해낸다. 노랑눈이의 자아는 더 이상의 가학적인 폭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부재와 상실로 내면화된 아버지 초자아의 비난어린 시선으로 자아를 바라보던 노랑눈이는 아버지의 실존적 등장으로 분열적 감정에 휩싸인다. 이제 노랑눈이는 천진하게 아버지에게 달려갈 수도 없고 내면화된 아버지와 실존적 아버지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며 “까닭 모를 서러움으로 눈물이 자꾸 흘러내리는” 것이다.

버틀러는 젠더의 수행적 특징으로 시·공간과 문화적인 지속성을 말하면서 그것은 이해되는 동시에 효과를 획득한다고 한다.<sup>14)</sup> 이러한 의례적 행위로 기대되고 수행되는 젠더에 대해 소설의 화자는 갈등을 일으킨다. 다시 말해 노랑눈이는 아버지 상실체험과 통합되지 못한 여성 젠

---

14) Judith Butthler, 앞의 책, 55쪽.

더로 인해 정체성의 불안과 감정적 분열이 발생한다. 때문에 노랑눈이는 젠더 수행을 이루지 못하고 가학적 폭식을 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사회적 습속규범으로 호명되는 젠더에 완전한 통합도 완전한 대항도 하지 못한 채 “빛 속에서 소리치며 일제히 끓어오르고 있는”(73쪽) 것이다.

### III. 무의식의 과정으로서 은유와 젠더 정체성 변모

은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sup>15)</sup> 사물과 사물의 이름을 넘나들며 방향과 상태를 바꾸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후 은유의 어원적 의미<sup>16)</sup>는 부단히 확장된다. 특히 신비평가인 I. A 리처즈는 은유의 사회적 기능과 은유적 구조를 주장한다. 또한 야콥슨은 은유와 환유를 계열체적 작동과 통합체적 작동으로 기술하고 ‘유사성’과 ‘인접성’의 원리로 실어증을 연구한다. 이후 라캉은 프로이트의 ‘암축’과 ‘전위’를 ‘은유’와 ‘환유’로 해석하고 무의식의 특징을 나타낸다.<sup>17)</sup> 이처럼 20세기에 이르러 은유는 수사학적 관점에서 의식적인 측면으로 나아가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의 무의식적인 측면까지 지평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지언어학은 은유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변화시켰다. 조지 레이코프와 마크 존슨을 중심으로 하는 은유론은 수사학적 범주를 넘어 ‘인지적 무의식’<sup>18)</sup>으로의 은유를 강조하면서 세계를 해석하는 하나의 얼

15) Aristoteles는 『시학』에서 은유를 “유(類)에서 종(種)으로, 혹은 종에서 유로, 혹은 종에서 종으로, 혹은 유추(類推)에 의하여 어떤 사물에 다른 사물에 속하는 이름을 전용(轉用)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시학』, 문예출판사, 1976, 124쪽.

16) 은유(隱喻 Metaphor)는 그리스어 ‘matapherein’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말은 ‘넘어서’, ‘초월하여’라는 뜻의 접두어 ‘meta’와 ‘가져가다’, ‘옮기다’의 뜻인 ‘pherein’의 합성어로 구성된다. 은유는 “암유(暗喻)의 개념으로 한 말에서 다른 말로 그 뜻을 옮기는 전이의 의미를 지닌다.” 신익호, 『현대 시론』, 박문사, 2014, 198~199쪽.

17) 오형엽, ‘인지언어학적 은유론의 수사학적 고찰’, 『語文學』, 한국어문학회, 2008, 500~501쪽.

18) 레이코프와 존슨은 ‘인지’가 “정신적 작용이나 구조이면서 청각, 시각, 기억, 주의와 사고 등을

개로 인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레이코프와 존슨은 “우리는 은유를 통해 도출하는 추론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간다”<sup>19)</sup>고 보았다. 이러한 ‘개념적 은유’는 고정되고 객관적인 것이 아닌 신체경험을 통한 과정으로서의 은유이다. 오형엽에 따르면 “개념적 은유는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발화자의 사고나 의식, 혹은 인지적 작용에 관심을 둔다. 즉 기표와 기의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의식이 은유적 본성을 떠며 한 정신 영역을 다른 정신영역에 의해 개념화하는 방식”<sup>20)</sup>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화 방식을 통해 “낯설고 추상적이고 경험 불가능한 영역을 익숙하고 경험 가능한 영역”<sup>21)</sup>으로 옮겨 놓는 것이다.

오정희는 작품에서 이러한 ‘인지적 무의식’ 관점에서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유년시절의 기억을 소환하고 연상을 통해 그 사건을 은유로 형상화 한다. 때문에 오정희의 소설에는 복합적 상징과 은유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작품의 곳곳에 독백형식과 과거와 현실의 이중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은유적 기법이 주는 상징적 의미가 후기작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있다. 그 중에서도 「옛 우물」은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7년의 공백을 깨고 발표한 작품이기도 하거니와 그간의 다른 작품과는 다른 인식이 반영되어 있고 그 인식을 은유적으로 표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작은 지방 도시에서 만성적인 편두통과 임신 중의 변비로 인한 치질에 시달리는 중년의 주부로 살아가고 있다. 유행하는 시와 에세이를 읽고 티브이의 뉴스를 보고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으

---

모두 포함하며 이는 대부분 무의식적”이라고 한다. 또한 이렇게 “신체화된 양식은 개념적 은유의 상상적 기제를 통해 추상적 사고”에 이르게 한다. George Lakoff, M. Johnson, 임지룡 옮김, 『몸의 철학』, 박이정, 2002, 13~38쪽.

19) George Lakoff, M. Johnson, 노양진·나의주 옮김, 『삶으로서의 은유』, 박이정, 2006, 414쪽.

20) 오형엽, 앞 논문, 504쪽.

21) 문은정, 「정신분석과 은유」, 한신대학교 정신분석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9쪽.

로 알려진 두 가지의 일간지를 동시에 구독해 읽는 것을 세상을 보는  
창구로 삼고 있다.<sup>22)</sup>

‘나’는 마흔다섯 번째 생일을 맞는다. 생일 아침에도 여느 날과 다를 것이 없는 낮이고 익숙한 실림 속에서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남편과 아들을 둔 평범한 중년의 주부이다. 정기적으로 가는 자모회, 재활센터 자원봉사, 장보기, 쑥탕 사우나, 이따금 차려입고 가는 공연장 나들이 등이 ‘나’를 채우고 있는 일상이다. 생일이라고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의 하루에 ‘나’는 문득 나의 출생을 떠올린다. 나는 “그녀로서는 마지막 출산이기를 바랐을 여자의 자궁에서 벗어나 시간의 그물에 걸려든” 것이다.(10쪽) 오정희 소설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다산하는 여성은 이 소설에도 등장한다. 「중국인 거리」에서 여덟 번째 아이를 가진 어머니의 구역질을 보면서 절망적 비애를 느낀 것과 같이 나의 출생 또한 어머니에게는 마지막 출산이기를 바라는 괴로운 일이다. 나의 출생에 관한 기억을 더듬다가 엄마가 동생을 낳던 날 ‘옛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던 것을 떠올린다. 물맛이 좋고 신성하게 여겨지던 마을의 ‘옛우물’에 증조할머니는 금빛 잉어가 산다고 말한다.

옛우물에는 금빛 잉어가 살고 있단다. 천 년이 지나면 이무기가 되고 또 천 년이 지나면 놀성벽력 치는 밤 용이 되어 하늘에 올라가지. 〈중략〉 딜빛 가득한 우물을 들여다보면 금빛 잉어가 슬며 슬며 물속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다. 계집아이들은 학교에서 오전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해 지기 전까지 물을 길어놓아야 했다. 두레

22) 오정희, 「옛우물」, 『불꽃놀이』, 문학과지성사, 1995, 14쪽. 이하 「옛우물」에 대한 인용은 모두 같은 책을 출전으로 하며 페이지만 적는다.

박을 빠뜨리면 매를 맞거나 별로 밥을 굽었지만 아이들은 늘 두레박을 빠뜨리고 저물 때까지 우물가에서 무력하고 절망적이고 공포에 찬 울음을 울곤 했다.(45~46쪽)

마을에 식수를 조달해주는 물맛이 좋은 우물은 신령한 신화가 부여되고 신비가 더해진다. 그러나 계집아이들에게는 가족의 식수를 조달하려 가야 하는 과업의 장소이자 부주의가 용납되지 않는 두려움의 장소이다. 장마가 지나고 물맛이 뒤집혀 우물 안을 치우는 날 텅 빈 우물 속에 금빛 잉어는 없다. 그래도 나와 정옥이는 금빛 잉어가 살리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두레박을 빠뜨려 빈 초롱을 들고 집에서 쫓겨났던” 정옥이는 또 두레박을 빠뜨리면 우물 속에 들어가서 견쳐오라는 경고를 들었고 한 밤에 우물에 갔다가 우물에 빠져 죽었다. 이른 새벽 우물가에 빈 초롱과 우물 속에 떠 있는 정옥이가 발견됐고 이후 우물은 메워졌다. 상수도 시설이 없던 시절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는 것은 여성에게 맡겨진 일중 고된 일이었다. 어린 계집아이들은 그 역할을 혹독하게 떠안으면서도 신성함을 강요하는 어른들에게 압도되어 두레박을 빠뜨리고는 우물가에 서서 “무력하고 절망적이고 공포에 찬 울음”을 울었던 것이다.

정자나무를 지나 먼 옛우물까지 가는 동안 언니는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물을 떠오면 할머니는 검볼이나 먼지가 떴는지 살핀 뒤 먼저 흰 사발에 담아 장독대로 돌아갔다. 다음에는 부뚜막의 조왕각시 사발에 채웠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마실이나 갔다 오게. 아야 여자가 낳는 거지. 할머니가 손사래를 쳐서 내보냈다. 남자야 아이를 만드는 데나 소용 있는 거지 하는 뜻이었을 게다.(11쪽)

어머니가 동생을 낳는 날 할머니는 언니와 나에게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한다. 평소 우물에 물을 길러 가는 것을 싫어하여 투덜거리던 언니도 그날은 청결과 염숙을 이르는 할머니 말에 우물로 가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길어온 물을 할머니는 오물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다시 살피고 흰 사발에 담아 장독대, 부뚜막의 조왕신께 바친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아버지는 없다. 할머니가 “마실이나 갔다 오게. 아야 여자가 넣는 거지”(11쪽)하며 아버지를 내보낸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듯 출산과 준비 그리고 고통까지 모든 일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이루어지고 남성은 역할도 책임도 없다.

버틀러는 젠더 정체성의 패러디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기원 없는 모방이란 의미에서의 정체성을 의미하며 원본이라는 것은 언제나 규범에 의해 재탄생된 복사본이고 원본과 복사본의 경계는 모호한 것”<sup>23)</sup>이라고 한다. 이는 복제를 다시 복제하는 시뮬라크르이며 따라서 원본의 권위는 허상인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생활용수와 식수를 제공하던 우물은 공동체를 이루고 정착할 수 있는 필수적 요소이자 삶의 원천이었다. 때문에 마을마다 우물을 신성시하여 맑은 물이 샘솟는 우물을 수호하고자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인지상정의 염원을 여성의 영역으로 제한함으로써 여성에게 책임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버틀러의 패러디적 젠더 정체성에 비추어 보면 우물을 여성적 생명력의 근원으로 보고 ‘모성성’을 여성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성에게 출산, 즉 생산과 풍요의 역할을 의무화하고 고정화하려는 것이며 여기에 신성과 신비가 덧입혀짐으로써 여성은 실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

23) Judith Butcher, 앞의 책, 32쪽.

마른 빨래를 개키면서 건성 눈길을 주었던 신문의 부고란에서 그의 이름을 보았을 때, 펠로 속에 박힌 직장과 전화번호를 재차 확인한 후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거울을 본 것이었다. 왜 그랬는지 어떤 심리가 나를 거울 앞으로 이끌었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다가간 거울에 조각조각 균열된 얼굴이 비쳤다. 갑자기 눈에 띄는 주름살도, 처음의 놀랄처럼 거울이 깨진 것도 아니었다. 오랜 세월 길들여진 관습과 관행이 한순간에 깨진 얼굴이었다. 아, 내 안의 비명이 새어 나오기도 전에 깨진 얼굴이 스러지고 익히 알고 있는 얼굴이 나타났다.(43쪽)

그 여름, 나는 나를 찾아온 그의 전화에 젖을 물리던 아이를 허둥대며 떼어내느라 피가 나는 가슴에 거즈를 대고 황급히 나갔다. 하지만 “빛과 소리와 어둠의 끝까지”(56쪽) 가보겠다고 대답한 사랑의 마음은 불륜으로 비취지는 관계의 이면에 자리 잡은 얼굴을 마주하고는 그는 묻힌 사람이 되었다. 그런 ‘그’의 죽음을 부고란을 통해 알게 된다. ‘나’는 그의 이름 옆에 있는 전화번호로 그를 확인하고는 무의식적으로 거울 앞에 선다. 순간 조각조각 균열된 얼굴이 비쳤고 놀랄 틈도 없이 이내 익숙한 ‘나’의 얼굴로 돌아왔다. 작가는 그 균열된 얼굴을 “오랜 세월 길들여진 관습과 관행이 한순간에 깨진 얼굴”(43쪽)로 묘사하고 있다. 그 후 ‘나’는 상점 진열장이나 슈퍼마켓의 거울, 물 위에 비친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 거울은 상징적으로 실재하는 세계의 형식을 반영하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자기를 성찰하는 도구로 인식된다. 세계를 반영하거나 자기를 반영한다는 이러한 거울의 상징은 물의 상징 즉 나르시스 신화와 연결된다.<sup>24)</sup> 따라서 이 소설에서 거울은 자아 성찰,

24)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23~24쪽.

혹은 나르시시즘적 반영으로서 타자가 위치한 초자아의 시선에서 분리되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획득을 의미한다.

우물과 거울은 모두 자기 응시와 반영적 은유를 지니고 있지만 이 소설에서 둘의 의미는 변모된다. 화자의 기억에서 우물은 신성성을 간직하고 여성의 태곳적 본질을 의미했다. 그러나 여성의 고정적 역할 수행을 요구하던 우물은 정옥이가 두레박을 찾으려다 빠져 죽은 후 메워졌다. 반면 그의 죽음을 확인한 나는 무의식적으로 거울을 보고 균열된 얼굴을 확인한다. 그 거울은 환상과 신비로 왜곡된 자아가 아닌 균열된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는 조각난 거울이다. 이제 ‘나’는 성찰적 자아를 찾기 위해 나를 비추는 곳에는 어디든 나를 물끄러미 비추는 습관이 생긴 것이다. 요컨대 우물에서 거울로 이어지는 은유는 화자의 기억으로 비롯되는 무의식적 인지작용으로 젠더 정체성의 변모를 표상한다. 이 소설에서 또 하나의 자기 반영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연당집이다.

나는 예성 아파트에 머무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을 통해 연당집을  
내려다보는 것으로 보냈다. 〈중략〉

창 아래 연당집이 사라졌다. 내가 꿈 없는 깊은 잠에 들었던 사이, 정오의 태양이 이우는 사이, 이백 년의 세월은 재처럼 내려앉았다. 장엄한 노을은 보랏빛으로 시들어 어둠이 차오르고 있었지만 집이 있던 자리, 폭삭 내려앉은 자리만은 이상하게 훤히 띠 보였다. 〈중략〉 바보는 무너진 집의 잔해를 헤집어보다가 그 주위를 황망하게 돌아다녔다. 왜, 왜, 왜? 뭐였지? 뭐였지? 바보의 움직임은 커다란 의문 부호 같았다. 그러나 바보는 자신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익숙한 것의 사라짐, 그 낯섦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59쪽)

연당집은 여름이면 수련이 장관을 이루는 연못 때문에 연당집이라고

불린다. 나는 잠시 살았고 지금은 비어있는 예성아파트를 찾아가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느끼곤 한다. 그곳에서는 연당집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연당집을 내려다보는 것으로 소일한다. 위엄 있는 고택의 규모와 위세를 간직하고 있는 연당집은 면면히 이어져 온 습속규범을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연당집의 연못을 바라보는 것은 나의 과거 속에 존재했던 우물을 기억하는 행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연당집은 송어와 활어회를 파는 가든을 짓기 위해 헐린다. 이백 년 고택이 재처럼 폭삭 내려앉았다. 모두 떠나고 홀로 남아 집을 지키던 연당집의 바보는 나무로 된 울타리를 손수 뽑으며 해체를 주도하지만 집이 헐린 자리에서 불안한 듯 서성이며 “커다란 의문 부호”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다. 나는 낮잠을 자는 사이 흔적 없이 사라진 연당집을 보며 바보가 느끼고 있는 “익숙한 것의 사라짐, 그 낯섦”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옛우물」에서는 젠더에 관한 은유적 표상이 충돌하고 변모한다. 이 소설은 그, 우물, 연당집, 그의 전화번호, 거울 등의 은유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 은유적 개념들로 작가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자신을 옥죄는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자아와 익숙하고 오래된 것의 사라짐을 불안해하는 자아를 형상화하고 있다. 여느 날과 다를 게 없는 생 일을 기점으로 ‘나’의 내부는 균열을 시작한다. 내면화된 초자아의 시선으로 인해 불안하고 위태로운 정체성, 관습과 규범으로 젠더를 규정하는 ‘우물’, ‘그’와의 사랑과 죽음, 그리고 연당집에 대한 집요한 관심 등 옷을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옷장처럼 혼란스럽던 나의 무의식은 과거의 사건을 하나씩 꺼내어 해석하면서 개념화한다. 그 결과 우물이 메워진 연유를 기억하고 연당집의 해체를 목도하게 된다. 또한 내면화된 초자아와의 분리를 은유하는 ‘그’의 죽음은 무의식적 인지작용의 변화를 나타낸다. 하지만 나는 “그가 죽고 내 안에 무엇인가가 죽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44쪽) 있다. 도덕적 강제자로 군림하고 있는 초자아에 균

열이 생겼지만 나는 아직 동일시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분열적 자아 안에는 조각난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나와 그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고장에 오른 그의 전화 번호를 가끔 눌러 보는 내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또한 ‘나’는 “누군가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듯 집을 해체하던 바보가 문득 집 주위를 돌아보며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흔들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태어나 유일하게 깃들었던 한 세계, 그것의 변모, 사라짐에 불안해하는 것일까.”(54쪽) 추측하는데 그 불안은 나에게 전염된다. “나는 과를 썰거나 두부모를 자르는 하찮은 칼질에서도 자주 손을 베고 유리컵을 깨뜨린다.”(54쪽)

나는 연당집 올타리가 있던 길로 접어들다 발길을 돌려 아파트 입구의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갔다. 동전을 넣고 번호판을 하나씩 힘주어 꾹꾹 눌렀다. 벨이 두 번 울리기도 전에 생소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못 걸렸나? 나는 할 말을 몰라 가만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동전을 넣고 다시 번호판을 꿈꼼히 눌렀다. 역시 벨이 두 번 울리기 전에 조금 전의 목소리가 받았다. 잘못 걸렸나 보다고, 미안하다고 더듬더듬 말하는 내게 그 여자는 새로 바뀐 전화번호라고 상냥하게 대답했다.(60쪽)

나는 연당집의 해체를 목도하고 나오는 길에 부고장에 있던 그의 전화번호를 습관처럼 누른다. 그의 부고를 보고 난 후에 나는 가끔씩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 그의 전화번호를 눌러 보곤 했다. “어둠의 심부를 향해 신호음을 울리며 이제 그가 사용할 수 없는 일련의 숫자들이 캄캄한 공허 속으로 끝없이 퍼져가는” 소리를 듣기 위해 나는 그의 번호를 눌러대는 벼룩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공허 속에 영속으로 퍼져가는 소

리 대신 낯선 여자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여자는 이제는 자신이 그 전화번호를 사용하노라고 알려준다. 나는 천천히 돌아서면서 그의 고유의 것으로 여겨지던 번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기이하게 여겨진다. 유년시절 아버지의 상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면화했던 것처럼 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던 나는 그의 고유한 것으로 여겨지던 전화번호가 ‘기의’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기표’임을 깨닫게 된다. “이젠 됐어요.”라고 말하는 ‘나’는 대상의 상실을 인정하고 은유의 기표적 작용을 시작하게 된다.

오정희는 소설 속 인물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유년시절은 경험한다. 소설 속 인물이 경험하는 일련의 정황은 작가의 전쟁체험과 전쟁 이후의 삶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 작가는 자신이 겪은 젠더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고 자신이 몸소 체험하고 획득한 젠더 정체성을 소설의 인물 속에 투영한다. 근원적 상실체험에서 우울증적 대응으로 초래된 자신의 젠더 형성기를 작품에 반복적으로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실의 체험과 현재를 미화하거나 이상화하지 않고 불구하고 모습과 모순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형상화하고 있다. 때문에 가부장제에 종속된 인물, 아버지 동일시로 여성 비하의 시선을 가진 인물 등이 빈번히 나오기 때문에 페미니즘 진영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오정희 자신도 “작품의 거개가 여성으로서 생활공간이며 작은 움직임으로 체험하는 공간”이라고 하면서 “내 안과 밖의 공간이 끊임없이 삼투작용을 하면서 한 줄의 문장이 이루어지는 것 ”<sup>25)</sup>이라고 했다. 이것은 오정희가 소설의 창작에 여성적 자의식의 탐구를 가장 염두에 있음을 그리고 그 탐구는 자신의 여성적 자의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정희는 창작을 다른 전기 혹은 진정한 ‘자서전’으로 보고 자신의 문학

---

25) 우찬제,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7, 29~30쪽.

적 생애를 창작을 통해 기술해 나가는 낭만주의적 시인<sup>26)</sup>의 태도로 여성적 자의식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내게 인생의 중첩된 이미지로 받아들여졌다. 양상한 뼈 위로 남루하고 커다란 덧옷을 걸친 듯 살가죽이 늘어진 한 늙은 여자 속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들어 있는 것일까. 보다 더 늙은 여자, 늙어가는 여자, 젊은 여자, 파과기의 소녀, 이윽고 누군가, 무엇인가 눈 틔워주기 를 기다리는 씨앗으로, 열매의 비밀로 조그맣게 존재하는 어린 여자아 이].(41쪽)

『옛우물』의 ‘나’는 목욕탕에서 마주치는 젊은 처녀들과 기름진 몸매의 중년 여자, 임산부, 겹겹이 늘어진 배로 다산의 흔적을 간직한 노파들 등 여자들의 몸을 보면서 러시아 인형인 마뜨로시카를 떠올리고 어느 늙은 여자 속에 간직된 늙어가는 여자, 젊은 여자, 초조기의 소녀, 씨앗으로 존재하는 조그만 여자아이를 상상한다. 이것은 작가가 지나온 여성으로의 여정과 같으며 시기마다 존재했던 젠더 정체성의 변모와도 부합된다. 근원적인 상실을 경험하고 우울증적 여성정체성을 갖는 시기인 「유년의 뜰」의 노랑눈이로부터 자기 비하의 시선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여성적 삶에 절망하는 초조의 소녀 ‘나’가 존재하는 「중국인 거리」 그리고 그 여성들을 통찰하는 「옛우물」의 ‘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옛우물」의 ‘나’는 그간의 근원적 상실체험을 해석하고 은유적으로 명명함으로써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해소되지 못한 우울증의 서사를 애도의 서사로 변모시킨다.

그것은 내면화된 초자아의 자기비하와 여성 젠더에 대한 환멸적 시선으로 표상된 작가의 우울증적 서사가 무의식의 과정으로서 은유를 통

26) 이현우, 『애도와 우울증』, 그린비, 2011, 33쪽.

하여 애도 서사로 변모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젠더 정체성은 자기 환멸에서 비롯되는 비난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누구의 반영이 아닌 주체적 욕망에 눈뜨게 된다.

루카치는 “우발적 세계와 문제적 개인은 서로를 조건 짓은 현실”<sup>27)</sup>이라고 한다. 만약 개인에게 목표들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고 그 목표들을 현실화하는데 위험이 야기되지 않는다면 이 세계는 문제적 개인도 없고 따라서 서사도 존재의 필요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삶 속에서 현실화 능력이 없는 현재와 이상 간의 간극으로 인해 문제적 개인과 이를 형상화하는 서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소설에 기댈 수 있는 것은 “문제적 개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편력, 단순히 현존해 있는 현실 속에서 흐릿하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명확한 자기 인식으로 가는 길”<sup>28)</sup>일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오정희는 그 길 위에서 부단히 서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오정희의 작품은 작가의 자기 인식을 표상하는 하나의 은유이며 그녀의 창작은 이해 불가능한 세계와 자아간의 갈등의 간격을 좁히는 자기탐색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IV. 나가며

지금까지 오정희의 소설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 「옛우물」을 중심으로 소설에 드러난 유년의 상실체험과 젠더 정체성 간의 관계를 무의식적 층위에서 고찰해 보았다. 「유년의 뜰」에서 전쟁터에 차출된 아버지의 부재는 전쟁 속에서 비열함을 감수하는 생존의 절박으로 인해 상실된 도덕률로 더욱 위태롭게 다가온다. 또한 아버지의 역할을 떠맡은

27) Georg Lukács, 김경식 옮김, 『소설의 이론』, (주)문예출판사, 2007, 89쪽.

28) 앞의 책, 92쪽.

어머니는 수상한 밤 외출이 잦아지고 급기야 마을사람들에게 늙은 갈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따라서 화자는 상실체험에 따른 대응에서 어머니와의 애착과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동일시한 대상의 대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내면화된 동일시 대상은 화자의 무의식에 초자아로 위치하게 된다. 타자를 초자아에 위치시킨 자아는 대상으로 향하던 상실의 분노를 자신에게 돌리게 되고 자기 비난의 정체성이 형성되게 된다. 「유년의 뜰」에서 자기 비하의 젠더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화자의 시선은 「중국인 거리」에서 여성 젠더에 대한 환멸적 시선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우울증적 정체성은 상실에 대한 은유적 대응이 결여된 것이다. 즉 상실을 인정하고 대상을 대체하는 은유적 구조화가 이행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불안하고 왜곡된 젠더 정체성의 표상이 「옛우물」에 이르러서는 다른 변모를 보인다. 「옛우물」에서 화자는 무의식의 기억을 소환하여 해석하고 명명하면서 은유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명을 임태하는 상징적 장소로서 신비화된 우물을 메워지고 고택의 위엄을 가지고 습속규범을 훈령하던 연당집은 혈리게 된다. 「옛우물」에서 '그'의 죽음은 내면화된 초자아의 소멸을 나타낸다. 소설 속 화자는 '그'의 죽음을 접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거울 앞에 서는데 거울 속에서 조각나고 균열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것은 환상과 신비로 왜곡된 자아가 아닌 비록 균열되었지만 현재의 모습을 직시하는 것이다. 그 후 화자는 자신을 비출 수 있는 곳 즉 상점의 진열장, 슈퍼마켓의 거울, 물 위 등에서 비춰진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습관이 생긴다. 하지만 조각조각 균열된 거울의 모습이 다시금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화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내면의 변화를 이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한다. 익숙하고 친숙한 내가 알던 하나의 세계가 허물어지는 낯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그'의 죽음을 알면서도 가끔씩 공중

전화 부스로 들어가 그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어두운 심연에서 오는 침묵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곤 한 것이다. 하지만 고유하다고 믿었던 그의 전화번호는 다른 누군가 쓸 수 있는 기표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시한 대상의 상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대상을 내면화하여 타인을 초자아에 위치시킨 무의식의 젠더 표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젠더 정체성이 무의식의 과정으로서 은유를 통해 젠더 정체성을 변모시켜가는 과정을 확인해보았다. 그것은 강제하는 심판자의 시선을 가진 자기 비하와 환멸의 젠더 정체성이 자기 주체적인 욕망을 확인하는 젠더 정체성으로 변모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가가 유년의 체험과 그것이 내면화된 자아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그것을 작품에 투영하면서 자기 정립의 토대로 삼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오정희는 작품에서 현실과 불화를 일으키는 여성 인물을 등장시키고 그들의 사유와 행위를 통해 여성적 자의식 탐구를 부단히 해온 작가이다. 그리고 그러한 탐구는 작가 자신의 젠더 정체성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무의식의 과정으로서 은유는 작가 의식과 작품에 연동되어 있으며 오정희 소설에서 다양한 변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오정희, 『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1981.

오정희, 『불꽃놀이』, 문학과지성사, 1995.

오정희,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1977.

오정희, 『바람의 뉘』, 문학과지성사, 1986.

오정희, 「나의 소설, 나의 삶」, 『작가세계』, 1995 여름호.

### 2. 논저

강윤희, 「오정희 소설 연구 : 여성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강지희,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승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곽상순, 「오정희 여성성장소설의 유년인물 연구」, 『어문연구』4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8, 319~337쪽.

김영애, 「오정희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 : 성장소설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2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4, 367~394쪽.

김은혜, 「오정희 성장소설의 트라우마 양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김지혜, 「오정희 초기 소설 연구 : ‘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등미령, 「『원구점 여인』에 나타난 나르시시즘 연구」, 『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53~80쪽.

문은정, 「정신분석과 은유」, 한신대학교 정신분석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박준희,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주체의 욕망 연구 : 텍스트의 무의식과 담론

- 구조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 신의호, 『현대시론』, 박문사, 2014
- 안숙원, 「오정희 단편소설 「동경」연구: 정신분석학적 접근」, 『인문사회과학연구』2,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2, 3~28쪽.
- 오형엽, 「인지언어학적 은유론의 수사학적 고찰」, 『語文學』, 한국어문학회, 2008, 499~528쪽.
- 우찬제,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7.
- 이가원, 「오정희소설의 인물연구 : 내면의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 이서현, 「오정희 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 이정은, 「오정희의 여성성장소설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이현우, 『애도와 우울증』, 그린비, 2011.
- 최수완, 「오정희 소설의 젠더정치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 최영미,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최윤자, 「오정희 소설 연구 : 용의 재생 모티브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 Sigmund Freud, 정장진 옮김, 『예술, 문학, 정신분석』, 열린책들.
- Sigmund Freud, 윤희기 옮김, 『무의식에 관하여』, 열린책들, 1997.
- Judith Butcher,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주)문학동네, 2008.
- Aristoteles, 천병희 옮김, 『시학』, 문예출판사, 1976.
- George Lakoff, M. Johnson, 임지룡 옮김, 『몸의 철학』, 박이정.
- George Lakoff, M. Johnson, 노양진·나이주 옮김, 『삶으로서의 은유』, 박이정,

2006.

Georg Lukács, 김경식 옮김, 『소설의 이론』, 주문예출판사, 2007.

<Abstract>

# A Study of the Unconscious and Gender Symbol Represented in the Novels of Oh Jung-hee

Doh, Soo-young

This study considered the symbol of gender identity represented in the novels of Oh Jung-he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conscious. Gender identity in her novels is represented as a metaphor reflecting the unconscious. The experience of loss of the narrator from the childhood appearing in her works fails in completion of the process of condolences, and is connected to internalization of the object of identification. For this reason, the narrator is not able to acquire gender identity as a woman and begins to build the vision of self-condemnation and self-disillusionment. In other words, the narrator cannot go through the process of replacing the object of identification through attachment and integration with her mother in the stage of losing her father, she allows the superego called "father" to be installed in her unconscious. The male superego installed in the narrator's unconscious leads the fury of loss to be directed to herself, and creates disillusion towards female gender. Nonetheless, the unstable and distorted gender identity of the narrator changes in "The

old well” written in the late stage of production of the novelist. This work “The old well” transforms into a narrative replacing the internalized object of identification through the metaphor reflecting the unconscious of the narrator. The narrator in this work recalls her memory to interpret and designate it, until she achieves to separate superego installed by other, and seeks for formation of independent gender identity. It is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experience and consciousness of the writer Oh Jung-hee a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narrator of her own work, in the middle of this process. This demonstrates that the research of female sense of identity, which Oh Jung-hee has been maintaining through her creation, is not irrelevant to female sense of identity of her own.

Key words: The unconscious, Metaphor, Experience of loss, Identification, Gender identity

이 논문은 2018년 7월 22일에 접수되어 2018년 8월 13일에 심사 완료되고 2018년 8월 21일에  
제재 확정되었음.